

## 선입견

정말 오래 전 70년대 TV가 생겼을 때 감기약 선전이 나온 적이 있다. “디-판토”라는 약인데 그 약은 유명한 코미디언 임희춘씨가 나온 선전이였다. 감기약으로는 탁월한 것이라고 선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선전을 기억하는 이유는 선전에 나오던 배경 음악 때문이다. 그 음악이 어린 나에게 정말 좋게 들렸다. 하지만 그 배경 음악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라는 것을 몇 년 후에나 알게 되었다. 삼성제약의 음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40여년이 흘러갔으나 그 배경 음악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면 유명한 슈베르트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디-판토”와 코미디언 임희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 평생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기약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먼저 나의 생각에 들어온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선전뿐이겠는가?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게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선입견이 생긴다. “저 사람은 신사일 것이다” 혹은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등... 나 나름대로 사람들을 결정하고 인사를 한다. 참 좋지 않은 버릇이 생기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한 순간 그렇게 선입견을 만들어 나가다가는 사업이고 일이고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손님을 맞기로 했다. 힘든 생활 가운데 먹어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서 그들의 달린 마음을 풀어내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짧은 인사를 대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보니 경직되어 만나는 관계가 아닌 좋은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서 감사(Thank you)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선교에 마음을 두고 많은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에 뛰어들고 나니 전혀 떠판인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의 세계관은 어디에 갔는지 나 중심적인 생각과 피해의식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좋지 않은 선입견이 나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절 6절)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간직했다면 나의 좋지 않은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손님들 중에는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품고 따뜻하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떠하든지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선입견으로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들으면서 먼저 생각나는 “디-판토”는 평생의 추억거리가 되었다. 이제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복음은 말이 없어도 힘 있게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리라 믿는다.